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상품 무역 적자 폭 커져... 3월 이후 처음으로
- WSJ: 현재 인플레이 비율이 얼마인지 정답이 없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모건 스탠리, “미 베퍼마켓 내년 1분기쯤 끝날 수도”

[부동산]

- JP 모건 보고서: 미 주택 시장, 정상 회복 예상된다
- CNBC: 주택 모기지 수요, 1년 전 보다 반으로 줄어

[의료]

- Bloomberg: 법원 명령, “백신 접종거부 해고된 뉴욕시 공무원 복직시켜라”
- CNBC: 장기 이식 기다리는 미국인 10만명 넘는다

[비즈니스와 업계 동향]

- WSJ: 미 기업 대상 ‘최저세’ 시행 다가온다... 분주한 기업들
- Bloomberg: 미 젊은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수입 못 따라가
- CNBC: 항공사들, 승객은 있는데 비행기가 부족하다
- CNN Business: 구글, 핵심 광고 사업 타격... 킹 달러와 불황 우려에 발목
- WSJ: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Mobileye 상장... 공모가는 주당 21달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Goods-Trade Deficit Widens for the First Time Since March

미 상품 무역 적자 폭 커져... 3월 이후 처음으로

- 9월 들어 미 상품 무역 흑자가 지난 6개월간 처음으로 늘었다. 수입이 늘고 일부 품목의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 적자가 지난달에 5.7% 벌어진 9백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 수출은 1.5% 떨어진 1천7백75억불을 기록했고, 수입은 2천6백98억불로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WSJ: What's the Inflation Rate? It's a Surprisingly Hard Question to Answer

현재 인플레이 비율이 얼마인지 정답 힘들다

요약: 미시적인 분석으로는 근원적인 인플레이를 3%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거시적인 분석은 다른 입장이라는 것.

- 답하기 힘든데 현재 3가지 입장이 있다. 8% 이상, 3% 아래, 그렇지 않고 그 중간 비율이라는 것.
- 근원적인 인플레이(underlying inflation)는 주로 수요와 공급 균형이라는 거시적인 요인에 좌우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는 여러 가지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요인들 때문이라는 것. 근원적인 인플레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를 보는 것이다.
- 현재 근원 인플레이를 8%로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또한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배제한다.
- 미시적인 분석은 팬데믹에 따른 변동 요인들을 많이 고려하는데 올해 9월 인플레이 8.2%가 내년 동월에 3.2%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희소식은 올해 봄 이래로 근원적인 인플레이의 또 다른 지표들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다행히 임금 인상은 조금 늦춰지고, 화폐 공급 확장(명목적인 수요를 가늠)도 연방정부 부양 현금이 끝나 급락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 비율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Morgan Stanley's Wilson Says Bear Market May End in Early 2023

모건 스탠리, “미 베어마켓 내년 1분기쯤 끝날 수도”

- 올해 슬럼프 미국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유명 주식 회의주의자인 모건 스탠리의 Mike Wilson은 미국의 현재 베어마켓이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내년 1분기 어디쯤에서 끝날 것이라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그는 그러나 시장이 다시 트레이드 오프가 되고 S&P 500이 3,650으로 떨어지면 베어마켓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S&P 500 지수가 3,600 부근인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EMA) 아래로 가면 15% 정도 리바운드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JP모건 보고서: More downside for housing, but normalcy, not a major housing correction, lies ahead 주택 시장, 정상 회복 예상된다

-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구매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모기지율이 상승하면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은 올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어도 가격이 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기록적인 40% 상승 후에 하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J.P. Morgan's Securitized Products Group Research에 따르면 올해 집값이 7.5% 상승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가격은 5% 하락할 것이라는 것.
- 요구하는 주택 임대료는 올해 초 17%로 크게 올랐으나 올해 9월에는 11%로 둔화됐다.
- 가시적인 미래에 공급 물량의 도전이 주택 가격에 계속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집 소유자의 90%가 현재의 모기지율보다 1~2% 낮은 모기지율이 낮기 때문에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공급은 20개 대도시 지역을 보면 2021년 수준으로 천천히 둔화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최근 수개월간 공급이 늘고 있는 반면에 지난 3년간보다 수요는 하락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JP 모건 보고서 원문

CNBC: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is now nearly half what it was a year ago 주택 모기지 수요, 1년 전 보다 반으로 줄어

-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율이 급등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 1997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 모기지율이 이번 주에도 약간 하락했는데 그러나 올해 초에 3% 하던 것이 여전히 7%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 가격도 지난해 보다 여전히 오른 수준이지만 인상세는 둔화되고 있다.

CNBC 기사

[의료]

Bloomberg: NYC Ordered to Reinstate Workers Fired for Covid Vaccine

Refusal**법원 명령,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된 뉴욕시 공무원 복직시켜라”**

- 뉴욕시 정부는 뉴욕주 법원 명령을 받았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뉴욕시 청소 업무 공무원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은 것.
- 스탠포드 아일랜드 소재 뉴욕주 법원 판사는 “접종한다고 해서 개인의 감염이나 감염 전파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고자들이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연방 질병 센터의 관련 가이드라인은 접종자나 미접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뉴욕시는 이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More than 100,000 Americans are waiting for an organ transplant
장기 이식 기다리는 미국인 10만명 넘는다**

- 비영리 단체인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 특히 비 백인계 인종, 저소득층, 여성들의 장기 이식 비율이 미국인 평균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 장기 이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세포 엔지니어링, 인공장기, 돼지 장기 이용 등이 활용되고 있다.
- 또한 사망한 사람의 장기 대신에 예컨대 콩팥 등 생존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논란은 있지만, 중요하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업계동향]**WSJ: Companies Seek Guidance on New U.S. Minimum Tax as Launch Date Nears****미 기업 대상 ‘최저세’ 시행 다가온다... 분주한 기업들**

- 미국의 법인 최저세의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기업들은 연방 정부에 시행 범위와 회사 분할(split-off)에 대한 적용 여부 등 비즈니스에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하나인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식적으로 보고된 연간 수익이 평균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세법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해 21%, 재무제표상 소득 기준 15% 이하의 비율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 법은 기업이

두 가지 계산법 중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세금은 적고 수익이 높은 기업들에 부과할 의도로 제정됐다.

- 기업들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회사가 최저세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주식 분할 거래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연방 국세청에 해당 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확한 지침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Young Americans Seen Failing to Match Baby Boomers' Wealth Gains

미 젊은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수입 못 따라가

- 1980년 이후 40년간 주택과 주식 가격의 기록적인 호황은 베이비붐 세대를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로 만들었다. 젊은 세대가 그와 같은 부를 축적하려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속에서 자산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Luis Bauluz경제학 교수는 1980년 이후의 호황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CUNEF University에서 진행한 미국 가계 재정 데이터 추적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가 높은 가격에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고 그 돈을 노인들이 가져가면서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재원의 이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Airlines have the passengers. Now they need the planes

항공사들, 승객은 있는데 비행기가 부족하다

-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생산 업체들이 조종사 부족 등 인력난과 부품 조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항공사들이 새로운 항공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항공 여행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을 쉽게 확장하지 못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한편 보잉은 이번 주 수요일 3분기 수익이 40%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생산 과정에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인정했다. 엔진 제조부터 공급까지 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내년까지 항공기 조달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CNN Business: Google's core business is slowing down amid recession fears

구글, 핵심 광고 사업 타격... 킹 달러와 불황 우려에 발목

-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이번 주 화요일 핵심 광고 사업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인해 월가의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 달러 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핵심 사업인 광고 검색 부문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 구글의 광고 수익은 1년 전 43%의 성장률에 비해 2.5%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특히 유튜브의 광고 사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2%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고, 구글의 순이익은 1백 39억 달러로 전년보다 29% 줄었다.

CNN Business 기사

WSJ: Intel Prices Widely Anticipated IPO for Self-Driving Car Unit

Mobileye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Mobileye 상장... 공모가는 주당 21달러

- 인텔은 이번 주 화요일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의 최초 공모가를 21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한 18~20달러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다.
- 이에 모빌아이는 4천 1백만 주를 팔아 8억 6천 1백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회사 가치는 약 1백70억 달러로 지난해 말 상장 계획 당시 목표였던 5백억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 한편 금리 상승 등 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해 주요 주가지수가 급격한 변동을 겪으며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역시 수요가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빅테크 시련의 날..."경기한파 시그널"

알파벳·MS 3분기 성장 부진
시간외 거래서 주가 동반하락
다른 빅테크 주가도 끌어내려
시장선 릴레이 어닝쇼크 우려
연준 '금리인상 공세' 현실로

미국 빅테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슈퍼위크’ 초입부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부진한 성장세와 암울한 전망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간외거래에서 두 기업의 주가 급락이 메타와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 주가까지 끌어내린 가운데 빅테크의 부진한 실적이 경기 한파의 또 다른 징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파벳은 25일(현지 시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691억 달러(약 99조 59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700억 5800만 달러를 밑도는 규모로, 특히 5분기 연속 둔화한 매출 성장률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쳐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7% 급락한 139억 달러, 주당순이익(EPS)은 시장 전망치(1.25 달러)를 밑도는 1.06달러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